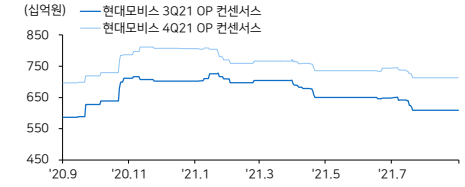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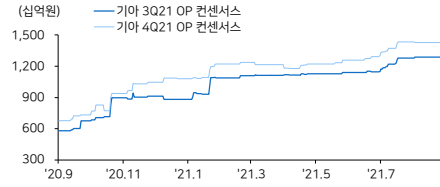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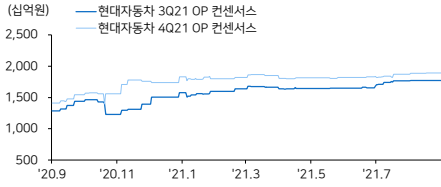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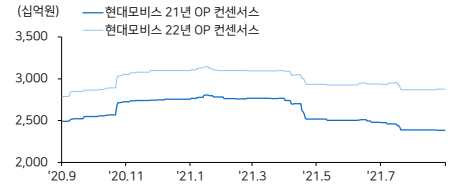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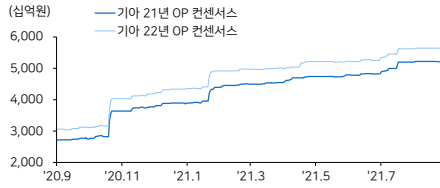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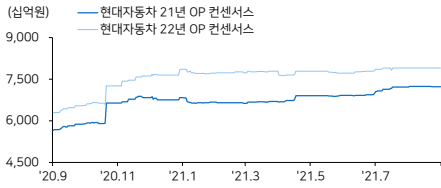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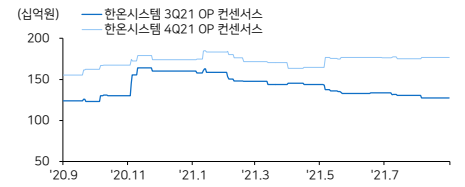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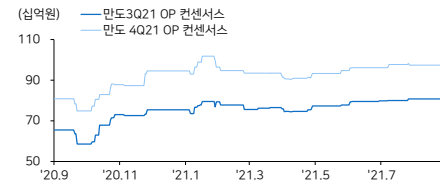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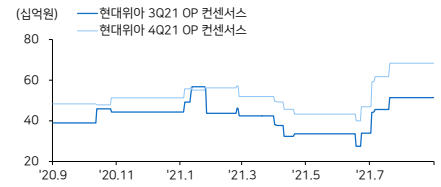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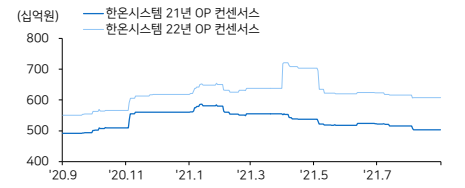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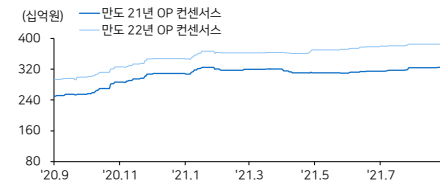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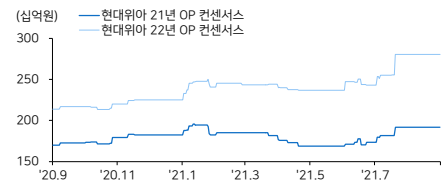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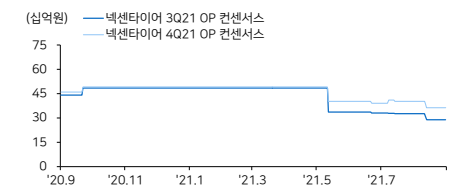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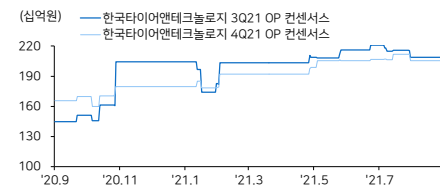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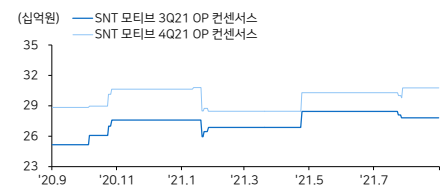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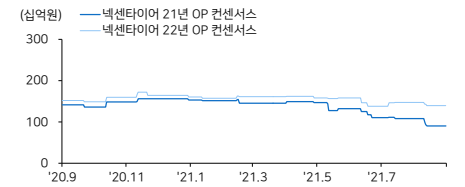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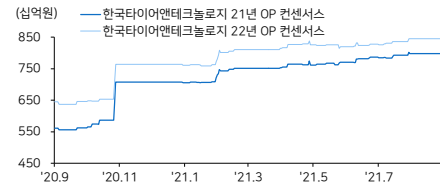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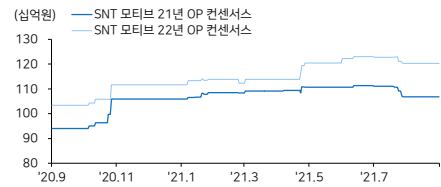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미래 모빌리티 선점' 현대차-폭스바겐 로보택시 상용화 경쟁 (동아일보)

현대차는 모셔빌과 함께 '아이오닉5' 모델로 2023년 로보택시 상용화를, 폭스바겐은 아르고와 함께 'ID버드 AD 프로토타입'으로 2025년 로보택시 상용화 계획을 발표함.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주도권 경쟁에서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는 중.
<https://bit.ly/3jWguJW>

기아, 인도서 주력 모델 가격 인상...수익성 확대 기대 (THE GURU)

8월 업계에 따르면 기아 인도판매법인(KMI)은 지난 1일 현지 인기 모델인 셀토스와 쏘넛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 몰류비와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이 원인. 실제 마르티 스텝키와 폭스바겐 등 타 업체도 같은 이유로 현지 판매 모델 일부 가격을 인상.
<https://bit.ly/3yVvThy>

"전기차 잇따른 출시 예고"...타이어업계, 3분기 호실적 기대 (이데일리)

타이어업계는 고우 등 원자재 가격 인상과 미국의 반덤핑 관세 결정 등의 경영 악화 상황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차 수요 증가와 완성차업체들의 하반기 신차 출시 예정으로 하반기 호실적이 기대됨.
<https://bit.ly/3hh14ka>

도요타 세계 첫 전고체 배터리차 공개... 판 혼들린다 (이코노믹리뷰)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고체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공개함과 동시에, HEV, EV에 탑재하는 배터리 생산/개발에 '20년까지 약 16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함.
<https://bit.ly/2VpWNR4>

기아, 멕시코 자동차 부품산업 동반 성장 추진...INA 협력 (THE GURU)

기아는 최근 몰류비, 관세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멕시코와 조지아, 엘라바라 등 자동차 생산 공장과 협업할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를 모색 중. 이를 위해 미국 자동차부품산업협회(INA)와 제휴를 맺고 별도 플랫폼을 개설.
<https://bit.ly/3E1pGEA>

후반도체 얼마나 급했으면...'출장금지' 풀고 미국 한 현대모비스 (머니투데이)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실장급 실무자를 미국으로 출장을 보냈. 현대모비스와 공급 계약을 맺은 미국 반도체사들을 방문하며 수급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yWbYzj>

인텔 모빌아이, 내년 독일서 레벨4 자율주행 적용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오토데일리)

7일 모빌아이는 2021 IAA 모빌리티에서 내년 독일 뮌헨에서 시작할 예정인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용할 6인승 전기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함. 중국의 전기자율주행차 니오의 7인승 전기SUV ES8를 기반으로 개발됨.
<https://bit.ly/38TGGOK>

중소기업 로보틱스 공개...수익성 개선 기대 (뉴스1)

사오평은 로보틱스 기업이 개발한 시 로보틱인 '사오바이룡'을 공개. 말을 형상화한 사오바이룡은 사족 보행 로봇으로 앞발과 뒷발 관절을 통해 보행을 할 수 있으며, 탑재된 카메라와 라이다로 주변 환경을 식별, 경로 탐색이 가능.
<https://bit.ly/3ySxyEF>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